



분주해진 생산라인

임금협상 타결로 22일 작업과 특근이 재개된 기아차 광주 1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환한 표정으로 글로벌 1위 박스카인 쏘울을 조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혁신도시 분양가 14% 인하

원형지 공급도 확대...나주 골프장 부지 82만㎡는 법 정비후 추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공동산단, 무안기업도시와 J프로젝트 부지 등 기업유치를 추진중인 광주·전남 지역 핵심 사업 대상지들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고, 원형지 공급이 추진되는 등 세종시 수정방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 소재 국가산단단지 등의 분양가를 14~20% 인하는 내용의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치분용지(자족가능용지)를 현행보다 38% 확대(244만㎡→338만㎡)함으로써 분양가를 14%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실시설계 변경 등을

진행중이며, 향후 가치분용지를 361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도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도로와 보도를 일방화하고,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축소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도 확대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민간에 공급예정인 골프장부지 82만㎡는 관련 법제 정비 이후에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광주·전남 공동산단(함평 빛그린 산단)에 대해서도 원형지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무안기업도시와 J프로젝트(영암·해남) 등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혁신·기업도시에는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아 원형지 공급 면적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 총 157개 대상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29개 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일하니까 좋다” 쏘울증산 박차

르포-임협 타결 기아차 광주공장 가 보니

잔업·특근 재개...“신차 SL도 대박 쳐야죠”

“하루빨리 쏘울 증산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차 SL도 대박 쳐야죠.”

22일 오후 6시 기아차 광주 1공장 쏘울 생산라인. 450여명의 근로자들이 쏘울 생산라인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1시간당 37대. 새해 벽두 파업으로 우중충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동안 중단됐던 작업이 재개된 것이다. 임금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덕분이다. 이번 주말에는 특근도 다시 시작한다.

1991년에 입사해 20년째 광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완성 2반 전경현(43)씨는 “생산 차질은 잔업·특근으로 만회하겠다”면서 “어렵게 (임금협상이) 타결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고 기분 좋은 차를 만들어 시민 사람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0+10’ 근무 형태다. 주야 근무조가 각각 8시간씩 정상 근무하고 잔업이 2시간 더해져 10시간씩 일한다.

“공장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심장과도 같죠. 멈추면 죽습니다.”

조립1부 최송주(51) 주임은 생산라인을 심장으로 비유했다.

쏘울 증산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심장을 팔팔하게 뛰게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연간 12만대를 생산하는 쏘울라인을 20만대 규모로 늘리는 야심에 찬 계획이다.

특히 2공장은 쏘울은 물론 스포티지 후속모델인 SL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체제로 탈바꿈한다. 쏘울의 신차효과가 끝나 판매대수가 줄게 되면 곧바로 SL신차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쏘울 증산 공사를 마무리하고 SL이 출시되면 광주 공장은 사상 최초로 50만대 양산 공장이 된다.

광주공장의 야심작 ‘쏘울’은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각종 상을 휩쓸고 있다.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닷컴’이 ‘올해의 추천차량’과 ‘대학생이 선호하는 10대 차량’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미국 자동차 웹사이트 ‘카즈닷컴’도 ‘올해 최고 해치백 모델’로 뽑았다. 또 미국 자동차 전문미디어 ‘워즈오트’의 ‘2009 가장 멋진 인테리어 차량’,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최고 안전한 차량’ 등에도 선정됐다.

식을 잘 모르는 인기에 광주공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쏘울만 1만 2천여대를 생산했다. 수출 백오더(계약 이후 출고를 기다리는 차량) 물량도 2만대를 훌쩍 넘겼다. 여기에 이날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내 두둑한 격려금도 받았다.

최 주임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해 고객과 시민들에게 외면받지 않고 사랑받는 기아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익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여수·광양산단서 발암물질

벤젠·염화비닐 기준치 이상 검출

여수·광양 산업단지 대규모 정비 작업장에서 벤젠 등 일부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6~2009년 여수·광양 산업단지 12개 사업장의 대규모 정비작업 참여 근로자 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 평가’와 ‘직업성암의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에서 체취한 벤젠, 1,3-부타디엔, 염화비닐(VCM) 시료 중 일부가 노출 기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료 중 노출 기준 초과 비율은 벤젠 7.6%, 1,3-부타디엔 8.1%, 염화비닐 5.9%였다. 벤젠과 1,3-부타디엔은 백혈병 등 림프조직계질

환에, 염화비닐은 간혈관육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알려졌다.

직업성 암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일반 인구집단의 암 발생률과 암에 의한 사망률을 1로 봤을 때 여수지역 플랜트건설 근로자의 표준화비는 0.65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표준화비란 일반 국민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1로 놓고 비교한 값으로 표준화비가 1보다 크면 일반 국민보다 위험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석유화학공장 정비작업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2월초 전국 석유화학업체와 정비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교육을 하고, 발주자인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정비작업 보건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연희뉴스

오늘 춥다

광주·전남 흐리고 눈

주말인 23일 광주·전남에는 눈이 내리겠으며, 종일 쌀쌀하겠다. 휴일인 24일 낮부터는 광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낮부터 점차 갠 것”이라고 22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5cm.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4도로 종일 추위가 계속될 것이다.

휴일인 24일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대체로 맑겠다. 이날 광주 기온은 영하 6도~영상 6도로 낮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